

[우수환경교육 연계 시나리오_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에 가다!]

[프로그램 개요]

<당일/유아 초등생/숲학교>



물의 순환 물방울여행기 in.검룡소

운영장소	태백산국립공원 검룡소 일원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길 475-2)
참가대상	유아 및 초등생(및 건강증진프로그램)
해설자원모니터링 기간	2019.01~06(상반기 최다 모니터링 구간)
환경부 인증 제2018-097호 환경부 인증 제2019-036호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에서의 환경교육
(1월~2월) 겨울을 건디는 자연	<p>주 해설자원 : 나무의 겨울눈, 복수초</p> <p>이시기 대표적인 물의 형태는 눈이다.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고 흐르는 검룡소의 이야기와 겨울을 건디는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식물의 겨울나기를 국어교육의 다양한 비유법을 적용하여 표현한다.</p> <p>겨울의 검룡소의 모습을 통해 느낀 점을 한줄 동시말하기를 통해 대상의 문학적 감성을 자극한다. 이를 통해 겨울의 의미를 말하고 대상의 환경감수성을 키우는 것의 활동목표를 가진다.</p>
(3월~4월) 생명이 움트는 검룡소	<p>주 해설자원 : 노루귀, 얼레지, 대성쓴풀, 제비꽃종류</p> <p>이시기 대표적인 물의 형태는 수증기이다. 봄의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이유와 새싹이 자라는 봄의 계절을 이야기한다. 작은 야생화들의 다양한 색과 모습을 관찰한다.</p> <p>봄의 검룡소의 모습을 통해 야생화 스케치&봄의 설렘 정의하기를 통해 대상의 계절감을 키운다. 이를 통해 봄의 의미를 말하고 대상의 환경감수성을 키우는 것의 활동목표를 가진다.</p>
(5월~6월) 다양한 색의 물의 계절	<p>주 해설자원 : 제비나비 종류, 일본잎갈나무, 백당나무</p> <p>이시기 대표적인 물의 형태는 유수(流水)이다. 여름의 더위를 씻는 계곡의 청량한 물소리를 듣고 우점을 이루는 제비나비를 이야기한다. 곤충의 존재이유와 보호의 가치를 대상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한다.</p> <p>여름의 검룡소의 모습을 통해 숲에서의 쉼(숲속사진관)을 이야기하여 숲에서의 추억을 선물한다. 이를 통해 자연과의 친분을 형성하여 자연의 보호가치와 미래세대의 지향점을 제시한다.</p>

물의 순환, 물방울여행기! in. 검룡소

활동장소	태백산국립공원 검룡소일원
소요시간	90분
참가대상	유아·초등생(5세~13세)
참가인원	20명
운영자	자연환경해설사 천서경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5일 흐르는 검룡소의 가치를 물의 순환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자연물을 통해 자연과 소통하는 법을 알고 환경자존감을 이끌어낸다.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5대강 하천지도, 용연동굴사진, 물의 순환사진, 구급키트 (겨울) 핫팩, 비유법 예시표, 수첩 및 필기구 (봄) 엽서, 색연필, 루페 (여름) 루페, 여행토퍼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물 관찰 및 체험 시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 • 지정된 탐방로만으로 출입하기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는 말 - 대상자 인원 파악 및 확인 - 프로그램 운영 목적과 필요성 및 운영진 소개 - 안전체조 및 주의사항 안내 	1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룡소야, 반가워! - 우리나라의 강 이야기(5대강) - 태백산국립공원의 검룡소 • 복류천이 뭐예요? - 복류천; 석회암과 숨어 흐르는 물 • 계절별 다양한 물의 모습 속 자연관찰 - 계절별 물의 모습 - 자연관찰과 표현법 <p>[자연(한줄)동시, 야생화스케치엽서, 숲속사진관]</p>	70분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점이자 도착점인, 검룡소에서. - 1등 이무기가 사는 법(검룡소 전설) - 물방울여행기; 자연은 순환해요. - 우리 자연의 주인; 미래세대입니다. 	10분

시나리오

검룡소야, 반가워!

[검룡소 표지석 앞에서] 친구들 실사영화로 제작되어 매우 인기가 많았던 알라딘을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어릴 땐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그때 보았던 기억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죠. 어른이 되어서도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지나 행복과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참 좋아서입니다. 여러분과 나눌 오늘 이야기가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 다시 검룡소에 올 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가치를 가장 인정하는 자연, 즉 국립공원에서 자연과 사람 이야기를 하는 해설사 천서경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OST라 해서 배경음악이 있죠? 선생님의 해설은 여러분의 숲 탐방에 배경음악이 되었으면 해요.

여기 큰 돌이 보이나요? 이런 돌을 표지석이라고 해요. 무엇이래 쓰여 있나요? 네, 검룡소죠. 이곳에 와본 친구 있나요? 모두 태백의 친구들인데 와본 친구도 있고 처음 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곳에선 물과 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이야기의 제목은 ‘물의 순환, 물방울여행기’입니다. 물은 늘 흐르고 하늘로 올라가고 얼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5개의 강을 사진을 통해 볼까요? (5대강 하천 지도 사진 활용) 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과 그리고 섬진강입니다. 높이 솟은 산 아래로 크고 작은 마을마다 모두 물이 지납니다. 우리나라 곳곳엔 이 큰 강들이 주를 이루고 작은 강들이 생겨나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쓸 수 있는 거죠.

이곳은 우리나라 강 중 가장 큰 강인 한강의 시작점, 태백산국립공원의 검룡소예요. 이곳에선 다양한 물의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태백에는 낙동강의 시작도 있어요. 한강은 강의 너비(유역면적)가 가장 크고 낙동강은 강의 길이가 가장 길죠. 우리 친구들은 엄청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숨 쉬는 곳, 검룡소로 떠나볼까요?

복류천이 뭐예요?

[복류천 해설판 앞에서] 어때요? 물이 보이나요? 계절과 날씨에 따라 이곳은 물이 보이기도 숨기도 해요. 옆드릴 복, 흐를 류 : 물이 바위 아래로 숨어 흐르는 구간이에요. 친구들 용연동굴 가봤나요? 태백의 대부분의 돌은 시멘트를 만드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있어요. 태백산의 석회암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까지 이어져 우리나라의 전체 매장량의 98%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석회암은 물에 녹아요. 그래서 물이 흐르고 스며들어 바위에

틈을 만들고 동굴도 만들죠. 이곳은 그래서 물이 바위 아래로 길을 만들어 숨어 흐르는 복류천이라 합니다. 같은 원리로 용연동굴도 물에 깎이고 녹아서 만들어졌죠. 물은 굉장히 대단한 조각가죠?



▲ 용연동굴 사진

계절별 다양한 물의 모습 속 자연관찰

[양서류 해설판 앞에서] 친구들이 밟고 있는 이 길은 주로 흙과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가 오면 질퍽거리는 진흙이 생기고 돌 위는 반질반질 미끄러워지죠. 눈이 오면 모두 하얗게 덮어서 흙과 돌을 감추고 매우 차가워지죠. 계절과 날씨에 따라 물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물의 순환 사진) 물은 봄의 아지랑이처럼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요. 다시 비나 눈으로 내려 강과 바다에 흐르다가 땅 속으로 흡수되기도 하고 동물과 식물의 몸속에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하늘로 가죠. 물은 부지런히 지구를 여행합니다. 한 방울의 물들이 모여 흐르는 것이 바로 강이죠.

그 물속엔 이렇게 개구리, 두꺼비, 도롱뇽이 살고 그 보다 작은 벌레들이 살고 물가에는 이렇게 나무와 풀들이 뿌리가 물을 마시려 둘러싸있죠.

주변에 무엇이 보이나요?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나무를 관찰해봐요. 겨울엔 봄을 준비하는 겨울눈이 있고 봄엔 차가운 눈을 녹여 꽃을 피우는 복수초, 지금 이맘때엔 제비나비와 다람쥐와 같은 동물도 볼 수 있죠.

루페로 같이 관찰해봐요. 친구들의 눈에 자연이 텔레비전처럼 비추면 우리는 시청자가 되어 자연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숲은 그저 보고 걷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친 일상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소예요.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숲을 찾으려면 숲에서의 추억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작은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겨울엔 날씨가 추워서 야외활동이 어렵죠, 그래서 검룡소의 겨울을 본 느낌을 한줄 동시에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아름다운 언어라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는 데요. 그중 한 이유가 비유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비유법 예시표) ‘검룡소처럼, 내 마음은 검룡소’ 이렇듯 말 속에 # 검룡소, # 계절, # 내 느낌을 담은 한 줄 말하기를 하는 데 비유나 리듬이 느껴지는 운율을 넣어 이야기해 봐요.

조금 어려울까요? 선생님이 그러면 예시로 말해볼게요. 제목 검룡소는 봄을 기다려, 호호 손을 부는 이 계절을 지나, 하하 손을 잡고 올 계절이 기대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숲을 보고 나의 느낌을 표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도 한 번 해봐요!

봄에는 다양한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피고 지는 꽃을 엮서지에 색연필로 스케치하고 나만의 봄의 설렘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제비 나비가 꽃에 앉아 꿀을 먹고 다람쥐가 조르르 다니고 꽃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냥 찍으면 재미없으니, 여행토퍼라는 종이 액자에 내 모습과 자연 모습을 담아 사진을 찍죠.

계절별로 다양한 활동의 가장 큰 이유는 친구들이 자연에서 편안하고 재밌게 쉬었던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서예요. 그래야 어른이 되어도 다시 찾아오고 싶은 자연이 될 테니까요.

		
한줄 (동시) 말하기	야생화스케치&봄의 설렘	숲에서의 쉼 (숲속사진관)

시작점이자 도착점인 검룡소에서

네, 마침내 검룡소 코앞까지 왔습니다. 선생님이 이곳에 오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검룡소의 전설이야기예요. 검룡소의 이름을

검+용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용소'는 용의 전설이 있는 물이 고이는 샘을 말하고요.

'검'은 으뜸을 뜻합니다. '단군왕검할아버지'의 '검'과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곳엔 용이 없고 용이 되려고 수련하다 이무기에 머물게 된 '한반도 1등 이무기'가 살고 있어요. 친구들 용과 이무기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나요? 네, 용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지만 이무기는 머문 곳에 물이 고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이무기가 용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싶어서인데, 수련에 실패한 자신에게 실망해 검룡소 안에 틀어 박혀버렸죠. 그러나 여긴 어느 강의 발원지이죠? 우리나라 강 중 가장 큰 유역면적을 자랑하는 '한강의 발원지'죠. '유역면적'이란 이 강에 딸린 식구들이 많다는 것이죠. 결국 이곳의 이무기는 자신의 소망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커다란 용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아직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어서 모를 거예요. 친구들이 이무기를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나이 때엔 참 꿈이 많았어요. 자신감도 많았죠. 우리 친구들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곳 이무기 이야기를 기억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비는 내리지 못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1등 이무기에게 '그럼에도 괜찮아! 충분히 자랑스러워!'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만큼 우리 친구들 스스로에게도 그러한 칭찬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약속하기로 해요! 이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괜찮아! 충분히 자랑스러워!”

물방울들은 지구 곳곳을 여행합니다. 그렇기에 이곳이 더러워지면 한강을 마시는 여러 사람들의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또 그래서 한강의 물도 바닷물도 땅 속 물도 모두 중요해요. 친구들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모두 소중한 것처럼요.

숲은, 자연은 우리를 치유하고 지켜주며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해주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러한 자연의 주인은 미래세대인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 보았던 애니메이션을 어른이 되어 다시 보는 그 기분처럼,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 이곳을 찾았을 때 선생님의 이야기가 마치 배경음악처럼 생각이 나서 미래세대인 여러분의 미래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국립공원 해설사 천서경이었습니다.